

월요광장



노 경 수
광주대 부동산학과 교수

도심 보행길, 프롬나드(Promenade)

존재한다. 도시 안을 돌아다니고 상점, 공연장, 카페, 공원 등과 친해짐으로써 도시는 재창조되고 그 도시에 생명력을 불어 넣는다"고 했다. 자연과 함께하는 둘레길, 건강을 위한 황토길, 폐선부지의 푸른길, 성지 순례길 등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도심 및 마을 보행길인 프롬나드에 관해서는 크게 나아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덴마크의 도시설계가 안 겔(Jan Gehl)은 프롬나드를 포함한 공개 공간에서의 활동을 크게 세 가지, '필수적 활동', '선택적 활동', '사회적 활동'으로 구분해 설명하였다. 필수적 활동은 '목적지로 단순히 이동하는 활동이다. 선택적 활동이란 산책, 서성이기, 잠시 앉기 등 필수적 활동 외에 부가적으로 일어나는 활동이다. 사회적 활동이란 사람들과 관련된 모든 활동으로, 단순히 길 가는 사람들을 관찰하는 행동처럼 모르는 사람들과 관련된 것도 포함한다.

안 겔에 의하면 좋은 도시, 좋은 동네의 조건 중 하나가 선택적 활동과 사회적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 두 가지 활동이 많이 이뤄지는 공간이 전통적으로 마을 프롬나드이다. 여기에서는 이동을 위한 통로 뿐만 아니라 산책, 머무름, 놀이 문화가 만들어지는 동네의 여가 공간이자 놀이터, 만남의 공간이다.

성공적인 프롬나드라고 한다면 어떠한 특징들을 지니고 있어야 할까? 사람들을 만나거나 구경하려고 프롬나드에 오는 것이므로 그곳에서의 보행자 밀도를 높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음식점이나 작은 상점들이 군

집 형태로 모이게 하되, 그 자체가 흡인력 있는 장소이여야 한다. 프롬나드의 길이는 450미터 정도가 적당한데, 광주의 경우로 본다면 충장로1가 입구에서 충장치안센터(파출소)까지의 거리이다. 보행 밀도는 최소 10명당 1명 정도가 적당하고 도로 폭은 생각보다 넓지 않은 3-6미터면 충분하다.

비록 그곳을 찾는 본래 이유가 사람을 만나거나 구경하는 데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여담이 '목적지'를 가지고 산책하는 것이 가볍고 부담이 없다. 목적지는 카페, 우체국 등과 같이 구체적일 수도 있으며 주변 지역 일부를 둘러보는 정도일 수도 있다. 좋은 도시의 거리로 이런 곳에서는 행동 유형도 달라진다. 건물 1층 정도만 외관과 물리적 구조를 바꾸면 도시를 이용하는 방식에 극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업에 따르면 사람들은 건물 전면에 특이한 형태가 없으면 더 빨리 지나간다. 사람들은 건물의 전면에 활짝 열려 있고 활기찬 도시 풍경에서 걷고 싶어하고 실제로 이런 곳에서는 행동 유형도 달라진다. 건물 1층 정도만 외관과 물리적 구조를 바꾸면 도시를 이용하는 방식에 극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지역에서도 그간 하천, 공원길, 학교 운동장 등 건강을 위해 걷고 산책하는 공간이 많아져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가족, 마을 이웃과 함께 흥미를 끄는 산책, 구경, 만남 등을 즐길 수 있는 마을 프롬나드가 늘어나다면 '저녁이 있는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다.

수필의 향기

운주사에서 만난 달마



박 용 수
수필가·동신여고 교사

을까. 달마는 이미 자기 마음을 부순 이다. 모든 것을 보는 이다. 그는 짙신 한 짙한 신교 서천으로 간 생명이 없는 이다. 면벽 정진 9년, 어느 순간 뒤에 무언가 사부 자기 움직인다.

"정법을 알려주십시오."
간절함이 묻어난 목소리에 달마도 단박 보통내가 아니라 낯 설었다.
"무엇을 구하느냐, 하늘에서 붉은 눈이 내리면 법(法)을 주겠다."

침묵이 흐르고 잠시 후, 피비내내가 진동한다. 달마가 뒤를 돌아보니 하늘에서 붉은 피가 눈처럼 흩날린다. 팔 하나가 바닥에서 팔뚝이 되고 있다. 던지지 거부 의 뜻으로 건넸는데 그는 검을 뽑아 단칼에 자기 왼팔을 벤 것이다.

부처나 보살도 몸으로 몸을 삼지 않고, 목숨으로 목숨을 삼지 않았다. 정법을 구할만한 이다.

신관이 비로소 달마의 제자가 되어 '혜가(慧可)'가 되는 순간이다.

살다 보면 누구나 혜가가 된다. 어디로 갈까. 어떻게 살까. 그렇게 세상을 떠돌고 삶을 헛돈다. 내 불안은 내 것만이 아니다. 세상에 부정의가 난무하는데 부정의보다 침묵하고 있는 내가 더 슬프고 아프다. 한시도 편안할 날이 없다. 미래의 불안, 재물이 남은 삶을 편안하게 해 줄 것으로 여긴 이는 허수사들이다. 사막이건 정글이건 본질을 찾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지옥이라도 찾아가 처절히 싸울 것이다. 원팔만이 아닌 오른팔, 몸뚱이가 지 내놓을 것이다.

그는 불법에 정진했어도 늘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했다. 또다시 스승 달마 앞에서 읊소한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달마는 혜가의 심중을 조목조목 읽고 있던 터다. 아파테이아를 꿈꾸지만 자기 안의 창살을 벗어나지 못한 그를 보고 묵직하게 입을 연다.

"불안한 네 마음을 내놓아라. 내가 편안하게 해 주겠다."

혜가는 지금 운주사 입구 거저탑에 지그시 기대어 쉬고 있다.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걸쳐 올린 탑은 누더기를 입고 있는 달마 그대로다. 그 앞에 팔 하나 없는 부처가 혜가다. 운주사를 묘법연화경 경전에 근거하여 풀이하는 박춘기 님의 해석대로 나는 운주사에 가면 이곳 달마에 몸을 기댄다. 그리고 혜가를 된다. 아니 나를 만난다.

어디에나 이런 스승이 있었으면 좋겠다. 고단한 마음을 달래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비록 돌맹이거나 바위 일지라도 난 거기서 피가 돌고 심장이 뛰는 것을 느낀다. 달마 무덤을 파 보았더니 정말 짙신 한 짙한 있었다는 말을 일부러 믿는다. 지금 이곳 운주사에 와서 와불을 바라보며 백년 아닌 천 년 면벽하고 있는 이가 그인 지 모른다.

기고

농산물 애용으로 'The 행복한 추석 나기'



고 성 신
농협중앙회 광주본부장

하지만 아름다운 농촌 가을 풍경과 수확의 기쁨을 누리려야 할 추석 명절을 앞둔 이 시기에 농민들의 마음은 편하지 않다.

올 봄 냉해 및 우박 피해와 여름철 폭염, 장마,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커지면서 생산량이 줄어 농산물 가격이 상승했다.

최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차례상에 주로 올라가는 사과 총량 10kg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50% 이상 오른 상태이며, 배 15kg의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2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추석 명절 차례상을 준비하는 비용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도 예상할 수 있듯이 과일을 비롯한 제수용품 가격이 많이 상승해 추석 명절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의 지갑은 쉽게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지에서는 생산량과 판매량 감소로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1년 중 농산물 소비가 가장 활발한 추석 명절 대목에 농민들의 한숨이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일, 채소 등 추석 성수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민과 소비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추석 불가 안정을 위해 국민들이 즐겨찾는 추석 성수품과 제수용품을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도록 '추석 맞이 농축산물 할인가대행'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2175개 농협 하나로마트 등 대형 중소형 마트와 24개 온라인몰, 전통시장 741 등

이 추석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해 참여하고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와 고물가, 수요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 지원을 위해 명절 기간(9월 5일~10월 4일) 동안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가격을 종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해 얼어붙은 농축수산물 소비를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를 포함한 관련 업계의 이러한 노력들은 결국 소비자인 국민들이 우리 농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러한 노력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기업에서는 선물을 우리 농축산물을 이용하여 대규모 소비 촉진의 마중물이 되어야 할 것이며, 가정에서는 추석 명절 할인행사 등을 활용해 우리 농축산물 이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리 농산물 구매는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 생산과 유통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이는 밥상 위의 건강한 먹거리로 연결되어, 국민들의 건강한 식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건강한 농산물 유통 생태계가 구축되면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울 수 있다. 이는 곧 지역 소멸 대응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추석에는 소중한 가족과 지인들에게 건강한 우리 농산물을 선물해 보는 것은 어떨까. 농업인들의 팍팍과 정성이 밴 농산물을 통해 명절 분위기도 살리고, 어려움을 처한 농업·농촌에 활력을 더해 농업인들의 깊은 한숨을 달아주는 밝은 추석이 되길 기대해본다.

社說

무안공항 유럽·미주 노선 취항 현실화 해야

오는 2025년이면 무안국제공항에서 유럽과 미주, 중동 등 중·장거리 노선 운항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공항이란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지방공항의 한계에 머물러 있는 무안공항이 명실상부한 서남권 거점 공항으로 도약할 계기를 마련한다는데 의미가 크다.

여건은 무리익어가고 있다. 가장 중요한 활주로 연장사업 예산을 확보해 현재 2800m인 활주로를 2025년이면 3160m로 늘어난 중장거리 노선 운항이 가능해진다. 전남도는 활주로 확장에 필요한 492억 원의 예산 중 올해 326억 원을 확보했고 내년에도 정부 예산안에 75억 원이 반영됐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광주 송정에서 무안공항을 경유해 목포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78.3km 고속철도망 설치사업으로 2025년 완공 예정이다. 사업이 완공되면 무안공항은 지방공항 중 유일하게 고속철도와 연결돼 여객 창출 시너지 효과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광주에 있는 민간공항까지 무안으로 이전된다면 무안공항은 연간 이용객이 200만 명을 넘어서는 명실상부한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거듭날 수 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가 무안군으로 좁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공항 이전도 군공항 이전과 연계할 가능성이 높다. 전남도는 이미 광주 군공항 및 민간공항 이전 후보지로 무안군을 염두에 두고 있다. 광주시의 결정만 남았는데 군공항 이전과 패키지로 진행할 수밖에 없어 민간공항 이전은 시간 문제라고 할 것이다.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유럽과 미주는 물론 동남아시아를 가더라도 버스로 4시간을 달려 인천공항까지 가고 있다. 이로 인한 시간 및 경제적 지출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무안공항이 서남권 거점공항이 될 수 있도록 기반 여건을 조성하는데 관련 자치단체와 지역 정치권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위험천만 예술의 거리 공사장 안전대책 필요

광주시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공사 현장의 안전 대책이 미비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책장비를 투입하는 대규모 공사임에도 보행로가 마련돼 있지 않고 우회로 등을 알리는 표지판도 없어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예술의 거리 보·차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 동구는 지난 12일부터 본격 공사에 들어가 판석 보도를 들어내고 아스콘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공사 구간은 동구 금남로 5·18 민주화운동기록관부터 중앙초등학교까지 410m 구간이다.

하지만 동구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제대로 된 안전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공사 현장에 보행로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공사장 접근을 막는 안전피조차 설치돼 있지 않았다. 또 관리비에 따라 보도를 점용해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 안전 도우미를 배치해야 하지만 이조차도 무시했다.

동구는 신호수가 보행 안전 도우미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어 별도로 배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신호수의 경우 건설 기계 등 차량을 대상으로 한 교통 통제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행자를 통제하고 안전 조치 역할을 하는 보행 안전 도우미와는 전혀 다르다고 설명한다. 또 보도 공사 중에는 펜스나 테이핑 등을 통해 공사 현장과 보행로를 구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은 탓에 시민들은 가동 중인 중장비 옆을 아슬아슬하게 피해 다니는 등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 판석을 들어내 진흙탕으로 변한 보도를 험하게 오고 갔다.

예술의 거리 보·차도 정비 공사는 오는 10월말까지 이어진다. 사고가 일어난 후에 후회해도 소용 없다. 관계 당국은 하루 빨리 주민들을 위한 보행로를 확보하고 안전한 이동을 위해 보행 안전 도우미를 배치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목포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문학을 주제로 박람회 개최하는 도시다. 문학을 모티브로 박람회를 연다는 것 자체가 신선한 발상이다. '목포는 항구다'라는 말을 '목포는 문학이다'라는 명제로 바꿔도 무방할 것 같다. 그만큼 문학 거목들을 많이 배출했는데, 특히 '근대문학의 선구자'라 일컫는 작가들의 면면은 자못 화려하다.

김우진(1897-1926)은 우리나라 연극에 근대극을 최초로 도입한 극작가다. 태어난 곳은 장성이지만 11세 때 동학운동 여파로 가족이 목포로 이주했다. 기존 신파극에서 탈피해 사실주의 연극에 토대를 둔 활동

문학적 자장은 오늘의 후배들에게까지 미칠 만큼 비평적 성과가 크다.

목포문학관 등지에서 지난 14-17일 펼쳐진 문학박람회가 막을 내렸다. 대부분 지자체 축제가 특산물, 상징물을 주제로 열리는 상황에서 문학을 모티브로 박람회를 연 목포시의 발상이 신선하다. '작가를 꿈꾸는 문학 유토피아'라는 주제로 전시를 비롯해 공연 등 120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목포문학 거목 4인의 예술세계에 초점을 맞춘 문학제와 학술대회에 문학인과 시민들 발길이 이어졌다.

문학박람회

사실 '문학이 모든 예연극에 토대를 둔 활동'을 전개했다. 박화성(1903-1988)은 우리나라 최초 장면소설을 집필한 여성 작가로 일제강점기 기층민의 참상을 풍부한 어휘로 형상화했다. 사실주의 연극을 확립한 차범석(1924-2006)은 극작가 외에도 연출가, 방송작가로도 족적을 남겼다. 극단 '산하'를 창단해 기라성 같은 연기자들을 배출했다. '평론은 이성적이어야 한다'는 관념을 깨고 산문 형식의 글을 선보인 김현(1942-1990)의 활약도 눈부시다. 그의 /박성천 문화부장·편집국장 skypark@

Table with 3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phone numbers and website.